

모두 발언

2023. 7. 14. (금) 15:00

은행연합회(14F)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준수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T/F에 참석해주신

8개 은행지주 및 5개 은행 임원분들과

T/F 취지만 듣고도

선뜻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금융연구원 권홍진 박사님과 ESG기준원 김형석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도 T/F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이나

스위스 크레딧스위스 은행(CS)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지배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금번 SVB와 CS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건전성 규제·감독의 미흡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은행 지배구조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기 저금리 상황에서 누적된 각종 리스크 요인을
경영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시정시켜야 할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제기구와 해외 감독당국도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은행 감독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점사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도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과거에 비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다소 편중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T/F는 앞으로 국내은행이
지배구조를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모범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best practice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Ⅱ T/F 운영 계획

앞으로 T/F에서는,

- ① 사외이사 지원체계,
- ②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 ③ 이사회 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 ④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
- ⑤ 내부통제 개선(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 주요 테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간 금감원은 주요 지배구조 테마별로

국제기준, 글로벌 금융회사 사례,

국내은행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해왔는데,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F는 앞으로 3~4개월 운영될 것이며,

금년 하반기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F에서 마련한 최종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모범규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Ⅲ 맺음말

이번 T/F가 우리나라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더욱 더 강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T/F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